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1월 15일 (제1184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나와의 약속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면서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 깊이 생각해봤다. 나는 지난해에 건강을 잃었다. 사고로 소천한 오치환 장로와 낙상한 강선이로 인해 심적 고통이 가중되어 건강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다. 그래서 2023년을 맞이하면서 건강을 되찾으려 노력 중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돈인가? 건강인가? 명예인가? 능력인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면 왜 잃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나는 그 이유가 대개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기도를 하루에 두 시간 하겠다', '올해는 영어공부를 하겠다', '올해는 새벽에 운동을 하겠다', '올해는 성경을 일독 하겠다'... 이런 자신과의 약속이 분명히 2022년에 있었을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능력을 잃고, 실력을 잃고, 성정을 잃고, 건강을 잃은 것이다. 귀찮다고, 아프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합리화하며 약속을 깎기에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이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자신에게 냉철해야 한다. 자신을 채찍질해야 한다. 남에게는 변호사처럼 굴고, 나에게서는 검사처럼 단호하고 까다롭게 굴어야 한다. 그래야 틈만 나면 나쁜해지는 몸을 일으키고, 틈만 나면 나태해지려는 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다.

나는 내게 굉장히 냉철하다. 나와의 약속을 깨면 거울을 보고 내 뺨을 때리며 '초석아, 왜 그랬어.' 야단을 친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자신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는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킵니다.' 하는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철저히 나와의 약속이 지켜질 때 가능하다. '기도하기', '성경 읽기', '봉사하기', '낮아지기', '정도로 걷기', '악을 행하지 않기'... 이 모두 나와의 약속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해다. 어차피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강을 건넌다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 과거는 잊고 이제라도 나와의 약속에 철저히해보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43:19)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목표를 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말라

"지금 내 주변에 열에 아홉은 나에게 4부 은사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나이를 생각해라, 건강을 돌보셔라', 물론 다 나를 위해서,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1년을 기도했고, 이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표가 정해지면 귀는 닫고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혁명은 입에 칼을 물지 않고 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올 사람만 따라오고, 나를 도울 자만 돕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 일한 자들은 반드시 그 날 그 시에 내가 받는 상과 동일한 상을

기도가 녹는 겁니다. 전도하던 자가 전도하지 않는다? 말씀 보던 자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 봉사하던 자가 근근이 예배만 참석한다? 다 녹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녹이 슬면 그 녹이 철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딘 철 연장을 갈아라, 갈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전10:10)."

그럼에도 소귀에 경 읽기,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악한 마귀에 속고, 귀신의 밥이 되어 세상에 깨지고

부터 세계 각지에서 목사님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을 비롯하여 필리핀, 중남미, 아프리카, 호주 등 집회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로 나가시기 전에 확실한 부흥동력의 기반을 다지시려는 마음에 저렇게 혼신을 다하시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는 목사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 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만물은 그대로 두면 다 퇴락하여 소멸한다. 화초도 매일 물을 주고 돌보며 가꾸어야 하는 것처럼, 관심은 살리고 무관심은 죽인다



이초석 목사 주일은사집회(매주일 오후 3시, KBS스포츠월드아레나홀)

받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새해 첫 주일부터 오후 2시에 진행된 4부 예배를 오후 3시로 변경하고 은사집회로 밀어붙이시며 하신 말씀이다. 한마디 한마디에 결기가 흘러넘친다. 그 연세에 이런 계획과 각오를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했다는 것 아니겠는가.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오며 목사님은 항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교단의 부흥과 성장의 동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설교로 기도를 강조하시고, 첫사랑의 회복을 강력히 촉구하셨다.

"내 신앙은 내가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이 녹슬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기도하던 자가 기도하지 않는다?

당하여 병들고 고통하는 성도들로, '주여~~~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는 찬송처럼 노심초사하던 목사님이 이제 술선수범으로 입에 칼을 물고 마지막 전의를 불사르고 계신 느낌이다. 이 늙은이가 내 목숨을 던져 모범을 보일 테니 더 이상 속지 말고 믿음의 길로 따라오라는 절절한 호소가 느껴진다.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해보자! 해보자!"하시며 독려하신다. "나는 자신 있다!"고 말씀하신다. 38년 목회의 노하우를 통해 부흥의 동력이 무엇인지 잘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목사님이 한국에만 계실 수 있다면 무엇이 걱정이었는가. 부르심의 사명이 있기에 목사님은 또 세계 영혼들을 향해 나가셔야 한다. 진작

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매일 매일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돌봐야 내 인생도, 내 신앙도 아름답게 성장한다. 자명한 진리 아닌가? 어떤 일이든 안 되는 이유는 수십, 수백 가지다. 그러나 '실패자는 핑계를 찾고, 성공자는 방법을 찾는다'고 목사님 말씀하지 않던가. 길을 찾아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구하면 구할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모두가 '가보자, 가보자, 해보자, 해보자'하며 함께 동참하자. 반드시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은사집회

매주일 오후 3시 (KBS스포츠월드)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15:14~16)



내 친구 너희들에게 내가 비밀을 알려주마

저의 호(號)는 봉우(朋友)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의 친구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며, 집안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왜냐면 친구에게는 숨기는 것이 없고, 말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아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밀은 저의 주(主)요, 저의 스승이시요, 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냐고요? 그렇다마다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요 15:14~15). 저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조건만 지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구더기가 무서우면
장 담그지 말라

2023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지요? 이제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죄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대로만 해보세요. 이는 제 친구이신 예수님의 명령이니 이대로 행하면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보세요. 주님은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전3:21).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 몇 명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국내 몇 대 그룹에 속하는 재벌도 나옵니다.”라고 자랑합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지교회의 어느 목사가 제게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라며 자랑을 하길래 저는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네 교회를 떠나야 너와 교회가 산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전1:31)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삼상2:8)라고 자랑한 것처럼, 다윗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시20:7)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목회 성공비결을 묻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천 번을 물어도, 만 번을 물어도 제 답은 동일합니다. 건강도 예수에게서 왔고, 지혜와 능력도 예수로부터 받았고, 자유와 담대함도, 오늘의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총회장 이초석 목사

사랑했더니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사 세상에 저의 ‘명성’(名聲)을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8~29)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9장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렘 9:23~24)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그러니 입에 침이 마르도

록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둘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이 센 사람, 박식한 사람,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찌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시146:3~4).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볼까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 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찌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렘17:7~8).

저도 예전에 권력자를 의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개망신이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 같은 목사가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손 같은 장로가 떠난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만 떠나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를 걸어가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으며, 메추라기 떼로 배불리셨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길에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천만에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힘이지요.” 하십니까? 소출이 많아 창고를 더 짓고자 하는 어느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셨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리

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눅12:20).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잠11:28).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금도 은도, 아니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 121:1~2).

셋째, 사람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 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눅12:4~5).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통탄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사 51:12~13).

만일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타협했겠지요.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신상에 절했을 것이고, 결국 그들의 울무에 걸려 끌려다녔을 겁니다(잠29:25). 제가 만일 사람이나 교단을 두려워했다면 오늘의 저와 예수중심교단이 있을까요? No. 하나님은 절대 지금처럼 저를 쓰시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 끝에 불붙는다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구라 칭하시고, 숨기는 것 없이 비밀을 다 말씀하실 것이며, 하늘 문을 여사 이 땅에 차고 넘치게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2023년에 밤이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봅시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합시다. 할렐루야!

2023 계묘년(癸卯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2022 임인년(壬寅年)이 저물고 2023 계묘년(癸卯年)이 밝았습니다. 나에게 있어 2022년도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2022년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내가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기로를 헤맬 때,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예수중심교단 목사님들의 합심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내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주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이 애타게 기도하니 너 안계훈은 다시 내려가라!” 이시대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던 중보신 예수님의 현몽과 환상입니다. 그렇게 나는 우리 예수중심교단 산하 목사님들의 중보기도에 의해 죽음의 자리에서 되살아나는 주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2022년 예수중심제자신학원이 다시 개설되면서 신학생들이 선발되었고 부족한 나에게 1, 2학기 ‘성경과 의학’이라는 강의

를 맡겨주셨습니다. 2022년 2월은 퇴원한 지 한 달여의 상태로서 나의 건강상태가 강의를 할 만큼 회복되지도 않았습다. 호흡이 짧아 숨이 거칠고 강의를 위해 말을 하려면 숨이 가쁜 상태였지만, 주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저 순종하는 자세로 강의를 맡았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강의할 체력과 지력과 영력을 주님이 또 주셨습니다. 1년 두 학기 동안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그리고 더 섬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두 가지를 깊게 체험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석입니다. 이 예배의 출석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강의를 하기 전 출석을 부릅니다. 한명 한명 호명합니다. 신학생의 얼굴을 보면서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누가 결석했는지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닌 강의를 듣기 위해 출석한 생도들과의 만남이 그저 즐겁고 반가운 시간입니다. 학생들보다 교수가 더 가슴설레는 시간입니다. 결석한 생도보다는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출석하여 강의실에서 조는 학생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출석한 생도들의 경우 설사 기말시험성적이 미달되어도 통과시키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온전한 출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며 찾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

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습 3:17). 예배에 참석한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신년 2023년에도 우리는 예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응답의 제1 조건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참석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4:23).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를 매 순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고 있기에 부모된 자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쁨은 자식의 입에 밥 수저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부모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자녀가 빠지거나 화가 나서 “나, 밥안 먹어! 나 집 나갈 거야!”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시험 들어 은혜의 보좌에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십니다. 이제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성도들은 성숙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서 예배에 힘쓰고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두 번째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주시고 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수된 자로서 한 학기 강의를 마치고 시험이든 과제물을 통해 평가하여 어떻게든 좋은 성적인 A를 주고 싶습니다. 허점과 티를 찾아내어 감점하려는 마음은 조

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무슨 구실을 찾아서라도 좋은 점수를 주고자 합니다. 80점의 점수만 갖추어도 A학점을 줍니다. 70점으로 C학점이지만 B학점을 줍니다. 낙제점인 50점대일지라도 출석과 수업태도, 그리고 평소의 행실을 들어가면서까지 낙제점인 F학점을 주지 않고 D학점을 줍니다. 낙제나 재수강을 시키지 않고 다시 분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고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오늘 내가 간곡히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받지 못한 이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주시고자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기에 하나님도 눈물을 머금고 보류하십니다. 응답을 미루어야 하는 하나님이 더 힘들고 괴롭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시81:15). 예배에 출석하는 체하기만 해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시대를 영원케 하십니다! 2023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예배 출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든 응답하시고자 애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항상 기도에 힘쓰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우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메디스텐 줄기세포센터) 대표원장 안계훈

제자신학원에서의 1년, 감사의 글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에 시작된 예수중심제자신학원이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던 것처럼, 2세대를 살아가는 제가 총회장 목사님의 지혜와 능력, 영감을 2세대로서 유산으로 받

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온 제자신학원에서의 1년이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총회장 목사님, 또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총회장 목사님께 직접 듣는 목회성장학, 설교의 대가 이시대 목사님께 듣는 설교학을 포함하여 14과목의 수업이 있습니다. 조직신학, 역사서, 모세오경 등의 성서학과 기독교 상담학, 교육학과 같은 목회학들은 저희에게 복음을 담는 신학적 그릇을 만들어줍니다. 이와 함께 권천국 목사님을 비롯하여 유수의 교단을 이끄셨던 선배님들의 특강이 있어 1세대 신앙인들의 신앙과 정신을 나누어주십니다. 이와 더불어 매일 공부하는 영어, 중국어 수업이 있어 유익합니다. 3년간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배우라는 개강예배의 메시지처럼 학

교에서는 최선을 다해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노랑진 교육관에서 온전히 신학적 소양을 기르는데 최고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수업 듣고, 팀별 모임을 하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방송 시스템을 갖춘 이곳에서의 수업은 다시보기 시스템을 통해 복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도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쉬는 시간에는 생도 휴게실에서 커피와 간식을 먹으며 다음 수업을 위한 휴식도 충분히 취할 수 있습니다. 방학 때에는 총회장 목사님과 함께한 금식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침저녁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강해해주시고, 함께 금식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겨울부터는 계절학기도 생겨서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나왔으나 그곳에서의 만족도보다 신학교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 뜻을 같이한 30명의 동기생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한해를 함께 보내왔습니다.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원생들은 우리 교단의 미래가 우리 어깨에 달려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영·혼·육을 단련하고 있으며, 총회장 목사님을 멘토 삼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3년의 과정을 마쳤을 때 하나님과 목사님, 여러 성도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제2의 이초석 목사님과 같은 시대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중심제자신학원 대표 문천명 생도

:: 간증 ::

:: 글꾼의 신앙 ::

은사집회 첫 예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서울예수중심교회 청년부에서 신앙 생활과 반주를 하고 있는 김이슬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중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먼저, 연초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2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있던 일입니다. 그날 저의 스케줄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서울청년부에서 신년 회 리허설 준비를 한 후, 곧바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 일정이었습니

다. 시경, 배가 너무너무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정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지 않고, 문 쪽에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쉬면 괜찮겠지 하고 집으로 갔는데, 너무 아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진통제나 위장 링겔 정도 맞으면 되겠지 하고, 빨리 다녀와서 곧 있을 1부예배(주일 오전 6시, 노량진 교육관) 반주하러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새벽 3시경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요로결석이라는 거예요. 응급상황으로 빨리 시술을 받는 게 좋겠다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겨 돌을 깨는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가려고 했던 노량진 반주는 너무나 속상했지만, 담당 전도사님과 목사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기력이 다해서 오전에 잠시 쉬고, 오후 3시로 바뀐 4부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 4부예배가 2시에서 3시로 바뀐 것도 다 저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단에 오르시자마자 통성으로 기도를 인도하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저는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찬양은 저에게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설교 후 아픈 사람들은 단으로 올라오라는 목사님 말씀에, 용기를 내서 한 발 한 발 단위로 올라갔습니다. 단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안수를 받았는데 화면에서 보던 대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제 안에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배 후에도 흥분되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저는 문래동 청년부 교육관에 가서 한 시간 정도 더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순간 치유해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후에 내원하여 돌이 잘 빠져나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바로 수요일에 대학병원에 가서 CT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제 믿음대로 깨끗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은사집회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배설하신 집회이고, 예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또한, 이 집회는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영혼들을 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 믿습니다. 서울청년부에서도 이 은사집회에 더 집중하며 전도에 힘쓰고 있는데, 제 간증으로 많은 이들이 더 힘을 얻고, 더불어 총회장 목사님의 주일은사집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간증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울예수중심교회 청년부 김이슬

하나님의 역사하심

광명교구 성도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목사 임직을 받을 때가 되어 광명으로 왔다’고 했다. 광명으로 온 전도사마다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광명 전도사로 올 때 내심 기대가 컸었다. 이초석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한 곳이고 성도들도 200명이 된다고 하여 마음으로 은근히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기도처는 그리 크지 않은 지하였고 가운데 기둥이 있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초석 목사님의 목회 근원지 광명은 목사님의 얼굴과 같은 곳이다.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기도처를 이전하자고 했다. 성도들을 독려하며 내가 먼저 200만 원을 헌금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하에서 지상으로, 보증금 2,000만 원 하는 곳으로 기도처를 이전하게 되었다. 김종일 장로님이 조장 구역장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처 이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셔서 쉽게 이전할 수 있었다.

내가 광명 전도사일 때 이초석 목사님이 메인스타디움집회를 하셨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장대비가 내렸다. 성도는 200명이었지만 자리는 500명으로 채워야 하는 높은 꼭대기였다. 경로당은 물론 가족들을 총동원하고 아이들이 잠잘 때 안고 자는 꿈돌이까지 들고나와서 의자를 도배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버스 운행비, 사람들이 데려오는 비용도 성도들이 다 담당했다.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물로 메인스타디움집회를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역시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도들이 많아야 무슨 일을 해도 쉽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큰 일을 가장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초석 목사님의 메인스타디움집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전국은 물론 세계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메인스타디움집회는 이초석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메인스타디움집회를 통해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덕을 보지 못하지만 큰 사람 밑에 있어야 큰일을 배우게 되고 큰 사람 덕으로 내가 성장함을 실감했다. 이초석 목사님을 통해 내 인생의 진로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다.

이승호 목사

2023년도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신입생 모집

:: 동행하는 삶 ::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얼마 전, 육아와 집안일로 인해 등과 허리의 통증이 오더니 갈수록 점점 심해졌다. 자세가 구부정한 상태로 지내다 보니 몸은 점점 더 아파져 왔다. 원인 모를 등 통증으로 인해 통증의학과도 다녀보고, 마사지도 받아봤지만 그때뿐이었고, 저녁이 되면 고통이 심해졌다. 보기에 딱했던지 남편이 운동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요가를 시작하였는데, 며칠이 되지 않아 신기하게도 통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남편과 아이들을 챙겨주느라 운동을 다니는 시간조차 내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시간을 내어 운동하러 가는 것이 정작 힘들고 귀찮다는 속마음 때문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안 되겠다 싶어 결단하고 시간을 내어 운동했더니 통증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저녁마다 아파했던 그 통증에서 해방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습관적인 구부정한 자세가 바르게 펴지고 더욱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돈을 잃으면 다시 벌면 되고, 명예를 잃으면 다시 찾으면 되나 건강을 잃으면 찾을 수 없다’고 하셨듯이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는, 절대 잃으면 안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되었다. 아이가 4학년 초부터 영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다들 2학년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던 터라 조금 초조한 마음이 있었는데, 남편이 가르쳐보겠다고 하여 영어학원을 보내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매일매일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돌보는 것만으로 체력적인 여유도, 시간적인 여유도 나지 않았다. 그래서 4학년이 되면서 영어학원을 보냈는데,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여 6개월 만에 2학년 때 시작했던 친구와 같은 반이 되었다. 학원에서 노력상도 받아오고, 매주 영어로 발표도 하며 실력이 쑥쑥 향상되고 있다. 아이도 처음에는 긴장을 많

이 하고, 학원에 가기 싫다는 말도 하며 힘들어했지만, 시도하고 계속 노력하니 이제는 학원에 가는 것도 적응이 되었고, 발표도 잘 해낸다. 시도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일단 시작해봐야 한다. 새로운 2023년을 위해 여러 가지 목표들과 기도 제목을 적어보았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배우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았다.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의 이름도 꼭 적어보았고, 이번에 새롭게 팀장을 맡게 된 청장년부에서도 지체들과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팀을 만들지도 생각해보았다. 리스트를 만들어 기도하고 체크해가며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 2023년이 되어야겠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언가를 해야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행동하는 신앙인,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다짐해본다.

정효경 집사

